

한전KDN(주)

금년 하반기 중 전기요금 인터넷 빌링 서비스

쏘금융기관 이용 가능한 EBPP 시스템 개발

한 국전력의 정보통신 자회사인 한전KDN(사장 鄭然東)은 올 하반기 중 한전 전력수용가 은행 부가 가치통신망(VAN) 신용카드사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 인터넷상에서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빌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한전KDN은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대상으로 결제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솔루션 개발을 마쳤으며, 이에 앞서 인천, 한진,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4사와도 인터넷 빌링

서비스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KDN은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체계를 구현한 솔루션과 은행 ARS망(폰뱅킹망) 이용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각종 청구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웹 투 ARS 컨버터 서버, 인증, 보안시스템 등을 갖춘 인터넷 빌링(EBPP)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가입고객이 전자고지된 청구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 결제요청 또는 이체요청을 하면 이를 처리하여 청구기관 또는 기업에 그 결과를 실시간 통보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인터넷 빌링 서비스에 비해 신뢰성, 편리성, 보안성, 신속성 등이 뛰어나다.

EBPP란 각종 청구서 및 고지서를 장표의 발행, 발송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고지하고 각종 지불수단을 이용, 인터

넷상에서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직접납부에 따른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서 조회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고지내역에 대한 프라이버시 노출방지와 고지서 관리 및 보존 등에서 편리하다.

또 청구기관 및 기업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발송에 따른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미납 연체료 시비를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국내 EBPP시장 규모는 올해 연간 6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04년에는 18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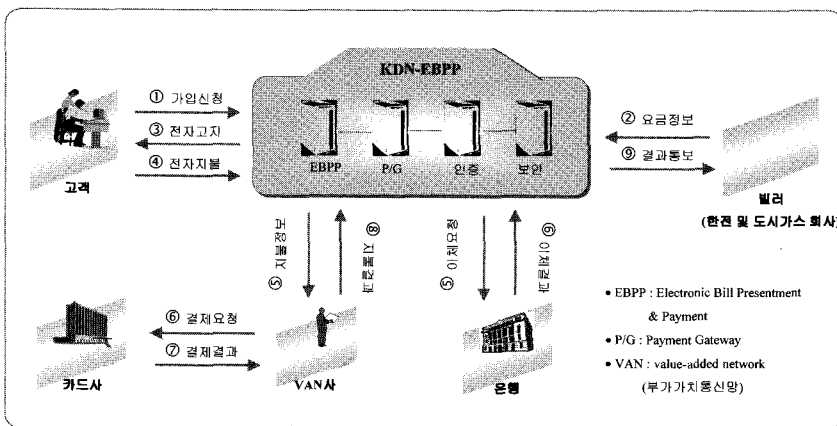
LG산전(주)

이란서 전자개폐기 2만 3천대 수주

LG 산전(대표: 金正萬 www.lgis.co.kr)은 최근 이란(IRAN)에너지성(Ministry of Energy)이 주관하는 이란 남부 커르먼(Kerman) 지방의 「농업용수 관개(灌溉) 프로젝트(Pump Station Project)」 입찰에서 전자개폐기 110만弗 규모인 2만 3천대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전자개폐기(브랜드명: Meta-Mec 시리즈)는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의 신호에 따라 전력을 끊고 이어줌으

KDN-EBPP 시스템 소개 (시스템 흐름도)



로써 부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LG산전 전력기기 해외사업부 고희정 부장은 “해외 단일 프로젝트에서 전자개폐기를 2만 3천대 수주한 것은 국내업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LG산전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독일 지멘스(SIEMENS), 스웨덴 ABB社 등 세계 우수 전력기기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 LG산전의 위상을 확고히 한 만큼 오일 달러 영향 등으로 중동특수 조짐이 있는 중동지역의 다른 프로젝트 입찰에서 LG산전은 보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산전은 지난 4월 국내 중전기분야 처음으로 전자개폐기 전기종에 대해 해외규격인 CE마크(유럽공동체 인증마크)와 UL마크(미국안전규격마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S마크를 획득,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LG산전은 전력기기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전력청 발주 프로젝트를 공략을 위해 최근 기중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 제품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 시험소가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 SCECO(Saudi Arabia Consolidated Electric Company)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주)

제2회 울산-현대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개최
가정의 달 맞아 건강과 화합의 한마당

現 代重工業(대표: 崔吉善)과 蔚山廣域市(시장: 沈完求)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회 울산-현대 전국 산악마라톤대회」가 지난 5월 13일(일) 現代重工業이 위치한 蔚山市 東區 鹽浦山(염포산) 일원에서 펼쳐졌다.

지난 해 첫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2천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이 대회는 올해도 2,260여명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대회가 열린 13일(일)은 서울, 경주, 대전, 강화도 등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마라톤대회가 4개나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것은 대회코스인 鹽浦山이 해발 206미터의 나즈막한 산이어서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달릴 수 있고, 특히 11.8km 코스인 전 구간은 해안선을 따라 동해바다와 세계 최대 시설의 現代重工業 선박 건조현장, 울산 시내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등 주위 경관도 뛰어나 산악마라톤 코스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다 주최측의

짜임새 있는 진행, 저렴한 참가비와 다양한 경품 및 성의 있는 식사 지원 등으로 참가자는 물론 행사장을 찾는 가족들에게까지 즐거운 한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참가자와 가족들은 대회 개최지와 5분에서 20~30분 거리의 인접한 곳이 있는 現代重工業과 現代自動車 등 산업시설과, 朱田~亭子~甘浦로 이어지는 절경의 해안선을 동시에 둘러볼 수 있고, 방어진 오징어(피데기), 江東과 亭子の 돌미역, 멸치액젓 등 전국적으로 이름난 이 지역 특산물과 싱싱한 횡거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 중의 하나였다.

두산중공업(주)

1/4분기 영업이익 153.4% 증가

두 산중공업은 지난 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서의 담수화 사업호조로 1/4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한 6261억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408억원과 3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3.4%, 230.8%나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2%에서 6.5%로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영업, 경상이익이 큰 폭으로 향상됐음에도 올 초 경영체질 강화를

위해 실시한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특별손실이 발생, 당기순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7.5% 감소한 113억원에 머물렀다.

수주 부문에서 두산중공업은 신월성 프로젝트 등의 대형 프로젝트와 발전설비 단품수주의 활성화에 따라 지난해 1/4분기보다 68.7% 증가한 834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두산중공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해외시장 다각화 전략 등을 통해 수주 및 매출이 증가했으며, 명예퇴직, 간접인력의 생산직화를 통한 외주물량 감소 등 구조조정의 효과가 전반적인 실적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연료(주)

중수로 원자력연료
생산·출하 1천톤 돌파

한 원전원자력연료의 중수로 원자력 연료 생산이 1천톤을 돌파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사장 김덕지)는 지난 4월 25일 중수로 원자력연료 생산·출하누계 1천톤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8년 1월 중수로 원자력연료를 생산한 지 3년 4개월만에 기록한 것이다.

한전원자력연료가 생산한 중수로 원자력연료 1천톤의 총 전력생산량은 590억kWh으로 우리 나라 약 2백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김덕지 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천톤 출하를 기점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외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세계와 겨룰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직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총 16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중수로형 원전은 월성원전 1·2·3·4호기 등 4개 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로 원전 4개 호기와 경수로 원전 12개 호기 모두 한전원자력연료가 연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회장 정태호)가 지난 5월 11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2001 춘계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전력기술부문 관계자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열린 이날 행사는 정태호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사업단장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전력계통 ▲송배전설비 ▲전력경제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무려 90편의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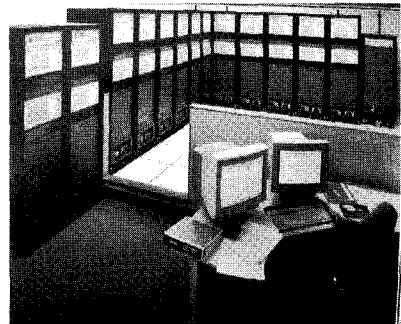
전력연구원

실시간 디지털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개발

한 전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 계통안정화그룹(그룹장: 추진부)이 세계 최초로 대규모 전력계통을 실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시뮬레이터를 3년 간의 개발기간 동안 10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전력계통 시뮬레이터는 유사이래 인간이 만든 최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력계통의 실증시험 장치로서, 이를 이용하면 전력계통 현상을 실시간으로 재현, 실제 전력계통에 근접한 정밀한 계통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력계통에 적용되는 각종 제어설비들의 특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60년대 말경부터 전력계통 시뮬레이터를 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및 일본도 '70년대 말경부터 개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70~'80년대에는 실물축소형 및 아날로그형의 시뮬레이터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90년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일부 아날로그 전력설비 모델이 컴퓨터소자에 의한 디지털 전력설비 모델로 대체된 하이브리드형 시뮬레이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동시에 소규모의 디지털형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디지털형 시뮬레이터의 정밀도, 신뢰도, 경제성, 편의성 등의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디지털 형식 쪽으로 편향되고 있다.

계통안정화그룹이 개발한 전력계통 시뮬레이터는 디지털형으로써, 전력계통 현상을 고속 병렬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Time Step: 50μ~70μ)으로 연산하고, 2kHz의 서지현상부터 수십분의 경제급전 현상까지 포괄적 및 연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계획 및 운용전략 수립, 신규 개발 기기의 실계통 실증시험 대체, 첨단 정밀제어기기의 최적운용, 그리고 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분야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계통안정화그룹은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전력계통 해석센터를 발족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기기인증시험 기관으로,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그리고 전력기기 실증시험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산·학·연 공동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외국사에 우리의 선진기술을 수출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우리 나라 전력산업 분야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자체 발전 비전을 수립하였다.

희성전선(주)

8월부터 광파이버 생산개시

희성전선(www.hscable.co.kr)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케이블 생산능력을 연산 80만 f.km로 증설, 완료하였으며, 광케이블의 주재료인 광 fiber 생산설비의 투자로 연산 80만 f.km를 올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광fiber의 규모는 국내 No.5이지만 수출면에서는 국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진이 팀웍을 이루어 준비를 착착 진행중에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UTP Cable Category 6급 제품도 최근 난연특성



〈희성전선 전주공장 전경사진〉

※국내 광섬유 생산업체 증설 현황

(단위 : 만 f.kim)

회사	2000년 생산능력	2001년 생산능력(목표)
LG 전선	500	1,000
삼성전자	400	800
대한전선	80	300
머큐리	80	200
희성전선	-	80
일진	-	50

뿐만 아니라 전기적 특성까지 포함한 국내 최초의 실질적인 미국 UL 인증을 받았으며 Category 7급 제품의 개발도 완료단계에 있으며, 미국 LEVITON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LAN 접속 자재와 광점퍼코드 등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Total Solution을 갖추고 정보통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희성전선은 금년 1/4분기 경영실적에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23% 신장한 765억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69% 신장한 42억, 경상이익은 60% 신장한 31억원을 시현하는 등 매출 및 이익에 있어서 큰 폭의 신장을 기록했다.

동사는 금년도 매출을 3100억, 경상이익 100억 이상을 목표로 광섬유, UTP Cable 등 정보통신사업의 확대와 전력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통신의 115억원의 광케이블을 수주하였고, 해외에서도 3300만불 상당의 광케이블과 동통신선의 수주를 실현하는 등 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